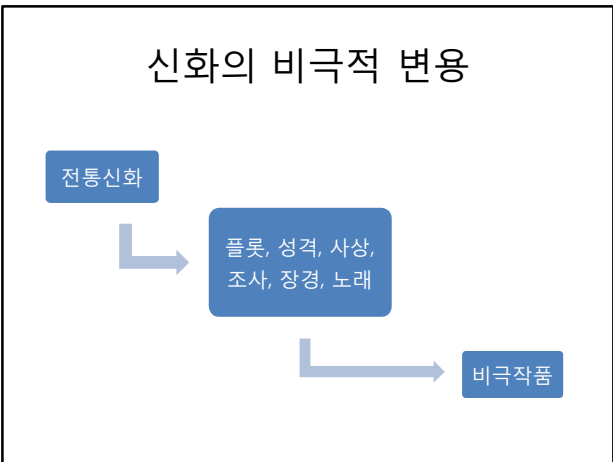


- ### 구성
- 신화에서 비극으로
 - 오레스테이아 삼부작
 - 호메로스 <오뒷세이아>
 - <아가멤논>
 - <제주를 바치는 여인들>
 - <자비로운 여신들>
 - 인간 정신의 위대한 성취: 신 · 인간 · 도시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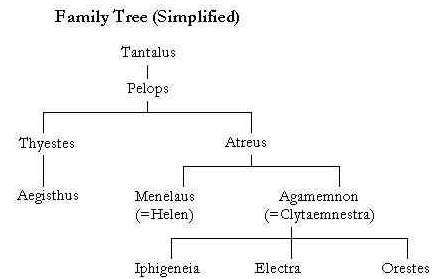
극화 대상, 극화 방식, 극화 결과
신화에서 비극으로



I. 극화 대상

비극적 사건이 친근자들 사이에서 일어난다면, 예컨대 살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형제가 형제에게, 혹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혹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혹은 아들이 어머니에게 행하거나 기도한다면 이와 같은 상황이야말로 시인이 추구해야 할 상황이다.”(<시학>1453b20-23)

펠롭스 가문



가문 내 골육상쟁: 간통, 요리, 저주

- 간통: 튀에스테스가 형수와 불륜
- 식사: 아트레우스는 튀에스테스의 아이들을 요리하여 아버지가 먹게 함
- 저주: 튀에스테스가 아트레우스를 저주함

II. 극화 방식

1. 신화의 변용: 전통과 개혁
2. 비극 플롯의 형성: 이야기 유형들의 유기적 결합
3. 신화적 과거와 역사적 현재의 결합
4. 비극 주인공의 형상화: 전형과 모범

III 극화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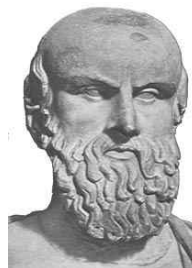
- 담론(discourse)의 생산
- 현재 상황에 대한 숙고와 미래에 대한 전망

왜 그리스 비극이 고전인가?

- 보편적 주제의 극화: 신과 인간, 운명과 자유 의지, 죄와 벌, 통치자의 조건, 남성과 여성의 대립, 인간 욕망 등
- 비극 주인공의 형상화: 모범 또는 반면교사
- 예술적 영감의 원천: 새로운 해석 가능성

오레스테이아 삼부작

아이스퀼로스(525/4-456 BC)



- 참주 정치에서 민주정치로(기원전 510년 클레이스테네스의 개혁)
- 페르시아 전쟁: 490년 마라톤 전투, 480년 살라미스 해전 참전

오레스테이아 삼부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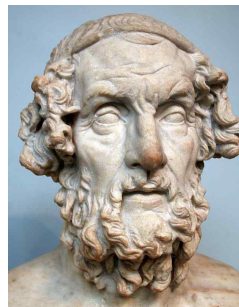
- 458 BC
- <아가멤논>
- <제주를 바치는 여자들>
- <자비로운 여신들>

역사적 배경: 귀족과 민중의 갈등

- 462년: 페리클레스와 에피알테스의 급진적 개혁: 시민이 입법 사법 행정의 주체가 됨
- 아레오파고스Areopagos(귀족 협의체)는 해체되고 혈족간의 살인을 재판하는 기능만 남게 됨.
- 461년: 에피알테스가 살해됨 -> 내전의 위기

호메로스 <오뒷세이아>

아이기스토스와 클뤼타임에스트라



그자[아이기스토스]는 말을 먹이는 아르 고스의 맨 안쪽에서 편안히 앉아서 아가멤논의 아내를 누차 감언이설로 유혹하려고 했소. 사실 처음에는 고귀한 클뤼타임에스트라는 그런 수치스런 짓을 거절했소. 그녀는 마음씨가 착했으니깐요. [중략] 한편 그녀는 그자가 자기 집으로 데려가니, 서로가 서로를 원했던 것이지요. (<오뒷세이아> 3.263-75)

아가멤논의 죽음

그러자 아이기스토스는 즉시 간계를 생각해 내어, / 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남자 스무 명을 뽑아 매복하게 해놓고는, / 궁전의 다른 한 쪽에서는 잔치를 준비하도록 명령했소. / 그러고는 말들과 전차들과 함께 백성들의 목자인 아가멤논을 / 초청하러 갔소. 마음속으로는 수치스런 짓을 궁리하면서, 그리하여 / **그자는, 자신의 파멸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그를 집으로 매려가서, / 잔치를 베풀어 중 다름 죽여 버렸소.** 마치 사람들이 구유 앞에서 황소를 / 죽이듯이. 그리고 아트레우스의 아들을 수행하던 전우들도, 아이기스토스 / 부하들도, 남은 자는 한 명도 없고, 모두 궁전 안에서 죽고 말았소. (<오뒷세이아>4.529-37)

오레스테스의 복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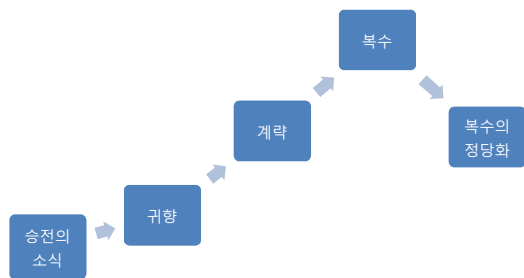
그리하여 그자[아이기스토스]는 아트레우스의 아들을 살해한 뒤, 칠년동안이나 / 황금이 많은 뮈케나이를 통치했고, 백성들은 그에게 굴복하지 않을 수 / 없었소. 그러나 팔 번째 되던 해에 고귀한 오레스테스가, / 그자의 재앙이 되고자, 아테나이에서 돌아와서, 자신의 이름난 아버지를 / 살해한 살부지수인 교활한 아이기스토스를 죽였소. / 그러나 그는 그자를 죽이고 나서, 그의 가증스런 어머니와 / 비겁한 아이기스토스를 위하여 아르고스 인들에게 장례잔치를 베풀어 주었소. (<오뒷세이아>3권. 304-310)

<오뒷세이아>의 아가멤논 신화

- 오뒷세우스
- 아가멤논
- 페넬로페
- 클뤼타이메스트라
- 텔레마코스
- 오레스테스

<아가멤논>

<아가멤논> 이야기줄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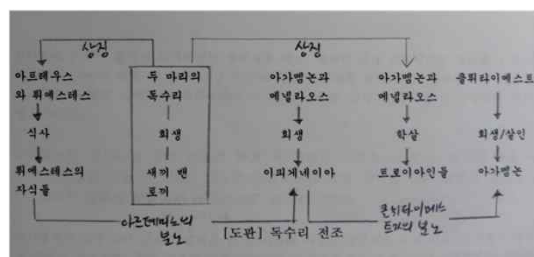
<아가멤논>의 전사

- 독수리 전조 cf. <일리아스>의 전조: 뱀과 참새 어미와 새끼들 모두 아홉마리(2.305-329)
- 이피게네이아의 희생

독수리 전조

검은 새와 꼬리 하얀 새가 / 창을 휘두르는 오른손 방향에서 / 궁전 근처에 나타나 / 모두에게 잘 보이는 자리에 앉아 / 새끼를 배서 몸이 무거워 / 마지막 주로를 마치지 못한 토끼의 후손을 잡아먹었구나. (115-120)

독수리 전조



이피게네이아의 희생

원정군이 아올리스에 모였을 때, 아가멤논은 사슴 한 마리를 사냥하고 궁술에서 아르테미스 여신을 능가한다고 말했다. 이에 분노한 아르테미스는 굶은 날씨를 보내 원정군의 선단이 항해하지 못하게 했다. 여신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는 이피게네이아를 희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가멤논과 원정군은 이피게네이아를 여신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다. 그러나 아르테미스 여신은 이피게네이아 대신 사슴 한 마리를 제단에 올려놓고, 그녀를 타우로스 인들에게로 보내서 그곳에서 불멸하게 하였다. (『퀴프리아 *Kypria*』)

이피게네이아의 희생1



이피게네이아의 희생2



아가멤논의 결정

아가멤논이 고개 숙여 강제의 굴레를 쓰자 / 마음의 바람은
불경하고 부정 타고 / 성스럽지 못한 방향으로 불었고 그때
부터 / 온갖 무모한 짓을 생각하는 정신으로 변하게 되었다
네. / 무자비한 착란錯亂은 수치스러운 계획으로 / 인간들
을 매담하게 만드니, 재앙의 시작이로구나. (<아가멤논>
218-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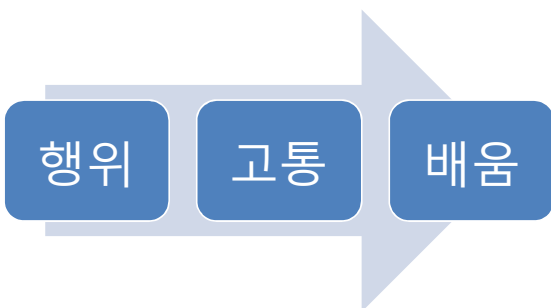
고통을 통한 배움

제우스께선 인간들이 사유의 길로 가게 하셨고, /고통을 통한 배움을 / 유효한 법칙으로 정하셨도다./ 잠은 찾아오지 않고/ 심장앞에선 고통을 떠올리는 아픔이 물방울처럼 듣고 있으니 / 원치 않는 자에게도 분별은 찾아오기 마련이라네./ 위엄 있는 조타수 자리에 앉아 계신/ 신들께선 호의를 베푸시나 강제적인 듯하구나.(176-183)

인간 주체의 행위

- 딜레마 상황 속에서 결정하고 행위 하는 인간. 고통을 겪어야만 함.
- 전통신화 속 인간의 행위를 내적 사건의 연관으로 파악함
- 행위 -> 고통 -> 배움: 제우스 신이 세상을 통치하는 법칙.

제우스의 법칙



승전 소식

- 전쟁의 정당성과 승전의 기쁨에서
- 정당성에 대한 회의와 패전의 분위기로

자주 빛 천 장면(931-43)



- 자주 빛 천의 중의성:
 - (1) 희생제물
 - (2) 가문의 골육상쟁
 - (3) 정교한 계략: 설득의 언어

- 아가멤논 운명의 반전:

계략과 복수, 남녀 갈등, 승리와 패배, 무지와 진실, 죄와 벌의 비극.

클뤼타이메스트라



복수의 환희

그렇게 쓰러지고 나서는 혈떡거리며 제 목숨을 내보냈고 / 상처에선 핏줄기를 날카롭게 내뿜으며 / 피 이슬의 검은 소나기로 날 때렸소./이삭이 나올 때 제우스가 내려주신 빗물에 / 흠뻑 젖어 기뻐하는 곡식마냥 꼭 그렇게 기뻐소이다.(1388-1392)

살인 동기

- 딸 이피게네이아의 희생.
- 캣산드라를 집에 데려옴. 아가멤논의 외도.
- 아트레우스의 악행에 대한 응징.

<아가멤논>의 플롯

- 복수: 과거의 행위에 대한 징벌. 정의의 문제.
- 반전: 승리자 아가멤논이 패배자로.
- 전도: 희생시킨 자가 희생제물로.

여자 주인공:클뤼타이메스트라



- 클뤼타이메스트라가 아가멤논을 살해함
→ 가정 내 남편과 아내의 갈등에 초점
- 남성 같은 여성.
연설 능력과 무력 사용 능력을 겸비함.

여성의 의무가 전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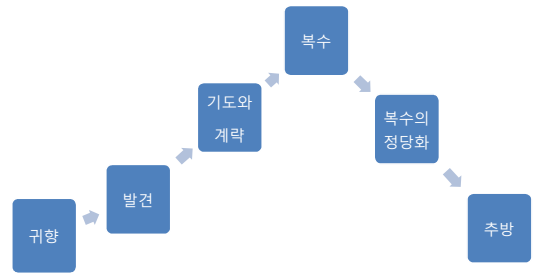
- 자주 빛 천을 밟고 궁전으로 들어가게 설득함: 양탄자, 즉 잘 짜여진 직물은 그녀의 치밀한 계략을 상징하고 여성의 무기를 의미함. 그물과 같은 직물로 감아서 남편을 살해함
- 남편 아가멤논을 가정의 사적인 공간인 목욕탕에서 살해함. 전쟁을 마치고 귀가한 남편을 목욕시켜주는 대신.

<아가멤논>정리

- 비극적 사건을 인간 행위의 내적 연관으로 바라봄: 행위와 책임의 문제
- 제우스의 법칙: 행위 - 고통 - 배움
- 정복 전쟁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 정복자가 패배자로 반전됨.
- 가족 내 남편과 아내의 긴장

<제주를 바치는 여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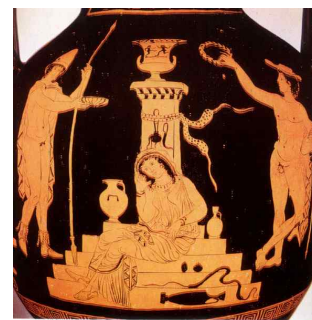
<제주를 바치는 여인들> 플롯



귀향

- <아가멤논>의 마지막 장면
- 오레스테스의 기도
- 아폴론의 신탁

발견



발견의 증거

- 머리카락
- 발자국
- 옷

기도와 계략

- 신들에게 기도를 함: 주저에서 결단으로.
- 오레스테스의 계략
- 유모의 고통
- 코러스의 개입 - 반전

어떻게 해야 하지?(899-902)



오레스테스의 비극성(908-30)

- 어떻게 해야 하지? 아폴론의 명령.
- 딜레마 상황
- 결단: 고통을 통한 배움

모친 살해 대 정당한 복수

- 운명의 탓 대 운명의 탓
- 아내의 불륜 대 남편의 외도
- 어머니의 개들 대 아버지의 개들

복수



복수의 정당화

- 아버지를 죽이고 집을 약탈한 폭군 한 쌍
- 아가멤논의 옷을 보여줌: 그물, 올가미, 덧, 휘장, 겹옷.
- 어머니가 아니라 바다뱀과 독사이다. 두 폭군.
- <아가멤논>의 장면과 상응함

추방



<아가멤논>과 <제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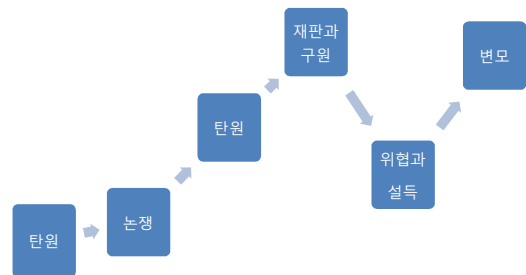
- 유사점: 이야기줄거리: 귀향 - 계략 - 복수 - 복수의 정당화
- 차이점: 복수의 동기와 복수의 결과

<제주.> 정리

- 오레스테스와 엘렉트라와의 발견
- 코러스의 결정적인 개입 -> 복수의 성공
- "어떻게 해야 하지?"오레스테스의 비극성
- 비극적 딜레마 상황에서 오레스테스의 결단
- 행한 자는 고통을 겪어야 한다.

<자비로운 여신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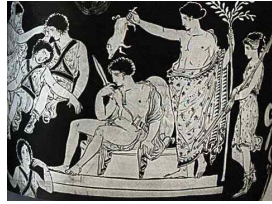
<자비로운여신들> 플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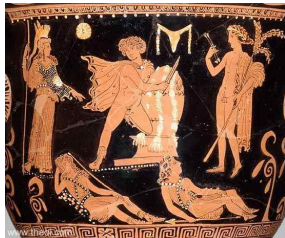
복수의 여신들



탄원1(델포이)



탄원1(+아테나 여신)



재판과 구원



아테나 여신의 연설(707-710)

- 살인사건 재판 법정: 아테나이의 영원한 제도
- 아레오파고스의 유래와 역사
- 도시국가의 이득
- 아레오파고스 법정 창설
- 배심원들에게 한 표 행사 명령

아테나 여신의 가르침

- 두려움과 존경심이란 도덕적 원리(cf. <자비.>517-525)
- 무정부와 독재의 양극단을 피하라는 중용의 정치적 원리(cf. <자비.>526-530)
- 오래된 신[복수의 여신들]과 새로운 신[아폴론, 아테나]의 영역을 변증법적으로 종합함.

투표의 결과

- 유죄표와 무죄표 동수: 6 대 6
- 자비의 법칙
- 아테나 여신의 한 표 행사: 신의 은총

위협과 설득

- 복수의 여신들의 위협
- 설득의 로고스(logos): 좋은 대접과 높은 명예를 약속함
- 자비로운 여신들로 변모함
- 폭력이 아닌 로고스로 문제 해결: 문명적인 힘

<자비.>의 결과

- [정치적] 아레오파고스 재판정의 설립
- [외교적] 아르고스와 아테나이의 동맹
- [종교적] 자비로운 여신들의 제의 설립

오레스테이아 삼부작 정리: 신, 인간, 도시국가.

인간정신의 위대한 성취

신

- 신들의 갈등과 화해
- 오레스테스의 복수로 드러난 갈등: 아테나 여신의 solution
- 법치와 민주주의를 구현한 시민국가의 탄생
- 제우스 신성의 진화와 제우스 통치의 확립

인간

- 고통을 통한 배움: 행위 - 고통 - 배움
- 행위의 이중 동기: 파리스의 비행, 이피게네이아의 희생, 오레스테스의 복수
- 딜레마 상황에서의 결단: 오레스테스의 복수: 행위와 책임, 죄와 벌의 비극성

도시국가: 두 영역의 대립과 종합

- 복수의 여신들 ↔ 아폴론/오레스테스
- *oikos*(가정) ↔ *polis*(도시국가)
- 여성적인 것 ↔ 남성적인 것
- 혈족관계 ↔ 결혼제도
- 구신(e.g. 복수의 여신들) ↔ 신신(아폴론, 아테나 등)
- 늪음, 어두움, 추함 ↔ 젊음, 밝음, 아름다움

정리

- 시민국가의 탄생: 두 영역의 변증법적 종합으로
- 내전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제언
- 복수의 정의에서 문명적 정의로
- 낙관적 세계관 제시: 로고스로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여 질서를 유지하고 변명을 추구하며 도덕과 정치로 민주주의를 수호하자!
- 아테나이 해상제국의 휘브리스에 대한 경고

